

# “이낙연 뒤통스”...민주 전남 후보 ‘인증샷’

### 전남 10개 선거구 출마 민주당 후보 10명 총출동 “선거구 조정과정 순천시민에 상처드렸다”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이 29일 전남과 전북 등 호남에서 4·15 총선 지원유세에 나섰다.

4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당 풀꽃에 상당수 의석을 내줬던 ‘뒤통스’ 호남에서 다시 민주당 자리를 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이 순천을 방문하자 민주당 후보 10명이 총출동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순천시 조례동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전남 동남권 국회의원 후보 공동정책 이행협약식에 참석했다.

김희재 여수을, 주철현 여수갑,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서동훈 순천

·광양·곡성·구례를 후보 등 4명은 의과대학 설립 공동추진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 공동 공약을 협약했다.

소병철 후보 선대위 출범식을 겸한 행사였지만, 전남 동남권은 물론 전남지역 10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승남 고흥·보성·강진·장흥 후보를 비롯해 김원이 목포 후보, 신정훈 나주·화순 후보,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 윤재갑 해남·완도·진도 후보,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후보가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가 끝나고 이 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을 했다.

동부권 후보들의 공동 공약선언식이었

지만, 사실상 이 위원장의 첫 전남 방문이어서 거리가 먼 후보들도 얼굴도장을 찍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는데 유력 대선주자와 찍은 사진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중도와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유세도 바쁜 만큼 호남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 후보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를 찾아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신대지구를 비롯한 해룡면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과정에서는 조정된 선거구가 21대에 한해 유효하다

는 조항을 넣었다”며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순천시민 해룡면민 신대지구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을 방문해 조선소 정상가동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하며 이 지역 민주당 신영대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와 힘을 합쳐 군산조선소가 정상 가동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현대중공업 경영 책임자들을 만나 최대한 설득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호남에서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을 겨냥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들의 복당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4·15총선서 촛불혁명 완성...겸손한 선거운동”

### 민주, 내달 5일까지 온라인 6일부터 오프라인 유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9일 4·15 총선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만큼 민주당은 비상한 자세로 겸손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 후보·유세 콘셉트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5 총선은 더 크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길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가는 관문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언론 개혁 등을 언급한 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 이후의 첫 총선”이라면서 “여당과 진보 세력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처 다할 수 없었던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선거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르는 사상 초유의 선거”라면서 “코로나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성공적 방역을 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 ‘조용한 선거·창의적 유세’를 한다는 방침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후보·유세 콘셉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슬로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웠다. 구체적으로 ▲공감과 책임의 언어사용 ▲온라인 강화 ▲스마트 콘텐츠 활용 등의 선거운동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지당 후보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와 관련, 권철승 중앙선거대책위 후보·유세 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서 진심 어린 공감과 소통, 격려, 위로의 언어사용은 필수로 상대 후보자 및 당에 대한 비방·막말을 하지 않겠다”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당·정·청과 후보자의 활동을 전파하고 촛불혁명 및 재집권 토대를 위한 총선의 의미를 알

리는 등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내달 5일까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유세에 집중키로 했다. 이어 6일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오프라인 유세도 탄력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온라인 유세와 관련, 이해찬·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매일 유세차량을 통해 공개하고 투표 독려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또 오프라인 유세는 후보자 1인이 울음없이 조용하

고 차분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세단의 명칭은 ‘국민지킴이유세단’으로 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선대위 등의 합동회의를 전국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키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시민당과의 공동선거운동과 관련, “출마자가 아닌 양 당의 모든 당직자와 당원은 공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사람이 아닌 정당이 주체가 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비례 투표용지 51.9cm 18년 만에 수작업개표

### 34.9cm까지만 분류기 사용 가능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자그마치 51.9cm에 달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될 전망이다.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최장이다.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 의사를 밝힌 정당은 총 38개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롯해 민생당, 정의당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는 1.0cm,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3cm를 적용해 투표용지를 작성한다.

하지만 정당 수가 23개를 넘어가게 되면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분 칸을 0.2cm로 줄이게 된다.

선관위 심사결과 총 38개 정당 참여가 확정될 경우 이번 총선에서는 기표란과 구분 칸, 위아래 여백 6.5cm를 포함해 총 51.9cm가 되는 것이다.

21개 정당이 참여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투표용지 길이는 33.5cm였다.

투표용지에 구분 칸이 없었던 17대는 24.7cm(14개 정당), 18대는 26.0cm(15개 정당), 19대는 31.2cm(20개 정당)였다.

이같이 정당 투표용지가 길어짐에 따라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기계 장치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100% 손으로 투표용지를 분류하게 됐다.

분류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표지는 최대 24개 정당이 들어가고, 길이는 34.9cm다.

심사 계수기의 경우 최대 39개 정당에 투표지의 길이가 52.7cm까지 일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간 각종 선관위에서 수차례 모의개표를 했다”며 “개표 사무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정부, 중위소득 이하 가구 4인 기준 100만원

### 중복지급은 제외할 듯...소요 재원 5~6조 추산

정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에는 차이가 나게 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어서 이에 앞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코로나19 극복 추경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3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연합뉴스

**화장실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 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CUBICLE**  
[주]중원큐비클

T : (062)525-6993~4  
F : (062)525-3832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

M : 010-3647-3832  
E : jwc3832@nate.com